# 2027년 NAND 가격 하락 전망과 오라클의 200억 달러 조달 완료

2026년 11월 19일

오늘 확인한 자료 두 건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메모리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2027년 NAND 플래시 가격 전망이고, 다른 하나는 오라클이 11월 4일에 완료한 200억 달러 조달입니다. 두 자료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메모리 수요에 관한 전망이고, 다른 하나는 AI 인프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한 확인된 사실입니다.

## ■ 확인된 데이터 1: 트렌드포스가 2027년 NAND 가격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2026년 11월 19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NAND 플래시 계약 가격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5% 하락하고, 2분기부터는 전 제품군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처: 트렌드포스 보도자료 (2026-11-19)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61119-13314.html

이 전망의 근거로 회사가 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 중국 CSP(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2027년 엔터프라이즈 SSD 주문을 줄인 규모가 북미 CSP의 주문 증가분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중국 측 배경으로는 GPU 부족, 재고 누적, 토큰 가격 경쟁 심화를 들었습니다. 반면 북미 CSP는 2027년 수요 전망을 다시 올렸다고 했습니다.

- 공급: 2027년 NAND 업계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6.7% 늘어 299억 달러에 이르고, 비트 기준 공급이 25~30%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크게 앞선다는 것이 하락 전망의 핵심입니다.

- 단기 흐름: 2026년 4분기 계약 가격 상승폭 전망을 기존보다 낮은 8~13%로 하향 조정했고, 스팟(현물) 가격은 최근 20% 이상 급락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 시장: 2027년에 저가 메모리 재고가 소진되면 완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제조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장용량 사양을 낮추면 기기당 평균 용량이 줄어 수요 부족이 더 커진다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 변수: 중국 CSP의 재고 축소 속도, GPU 해외 조달 규제 변화, 2028년 소비자기기 사양 하향 지속 여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방향을 앞으로의 변수로 꼽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한 조사업체의 전망이지 확정된 수요 데이터가 아닙니다. 둘째, 이 자료는 NAND 플래시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확인한 엔비디아의 복수 연도 메모리 구매 약정 확대(2026년 11월 17일 공시)는 주로 DRAM과 HBM에 관한 내용으로, 제품이 다릅니다. 두 자료를 합쳐 "메모리 수요가 이렇다"고 한 방향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 확인된 데이터 2: 오라클이 11월 4일 200억 달러 조달을 완료했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사실)

오늘 점검에서 확인한 11월 4일자 사건입니다.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8-K 공시에 따르면, 오라클은 2026년 11월 4일 선순위 무담보 채권 100억 달러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만기와 쿠폰(표면금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9년 만기 20억 달러, 쿠폰 7.000%

- 2031년 만기 17.5억 달러, 쿠폰 7.450%

- 2033년 만기 22.5억 달러, 쿠폰 7.850%

- 2037년 만기 25억 달러, 쿠폰 8.000%

- 2046년 만기 15억 달러, 쿠폰 8.650%

같은 날 보통주 100억 달러(86,206,897주) 발행도 완료했습니다. 채권과 주식을 합쳐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조달 자금의 용도는

일반 기업 목적이며, 여기에는 설비투자, 부채 상환, 투자·인수, 배당·자사주 매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출처: 오라클 8-K 공시 (SEC, 2026-11-04)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41439/000119312526447507/d131790d8k.htm

앞서 이 블로그에서는 S&P와 피치가 11월 2일 이 채권 발행 제안에 등급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발행등급 부여는 발행 완료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8-K가 발행 완료의 확인 증거입니다.

## ■ 판단 (데이터와 구분되는 해석입니다)

1. NAND 전망의 위치: 2027년 NAND 가격 하락 전망이 조사업체의 공식 수치와 함께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모리 하방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참고할 자료가 하나 늘었습니다. 다만 단일 연구사의 전망이고, 같은 보도자료 안에도 북미 수요 재상향처럼 반대 방향의 내용이 있습니다. NAND에 관한 전망을 DRAM과 HBM 수요 판단으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2. 오라클 조달이 확인해 준 두 가지 사실: 첫째, 오라클은 현재 등급 상태에서 대규모 조달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 비용은 쿠폰 기준 7.0~8.65%였습니다. 투자등급 기업 채권 치고 높은 금리라는 평가는 시장의 일반적 해석이지만, 그 자체로 신용 등급 변경이나 채무불이행 같은 신용 사건은 아닙니다.

3. 두 자료의 관계: 하나는 메모리 제품별 수요 전망, 다른 하나는 AI 인프라 기업의 자금 조달 사실입니다. 둘을 합쳐 한 방향의 결론을 내기에는 층위가 다릅니다. 수요 확인(제품별로 엇갈림)과 신용 부담(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기존의 두 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자료에 맞는 정리입니다.

## ■ 출처 일람

- 트렌드포스 2027년 NAND 전망 보도자료 (2026-11-19):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61119-13314.html

- 오라클 8-K 공시, 채권·보통주 발행 완료 (SEC, 2026-11-04):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41439/000119312526447507/d131790d8k.htm